



채드윅 인터내셔널
제프 머서
총괄교장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채드윅 스쿨이 본교인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2010년 9월 송도에 개교해 480여 명의 국내외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만 4세 유아원부터 내년에 문을 열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 과정을 갖추고 있다. 국제학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요즘,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강남 엄마들이 입학하고 싶은 1순위 국제학교라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아침,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교정에 나와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제프 머서 총괄교장이다. 교장 선생님과 거리낌 없이 농담을 주고 받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친근한 그의 미소가 인상적이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제프 머서 총괄교장은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채드윅 스쿨과 송도 채드윅 인터내셔널 두 캠퍼스가 하나의 채드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온 장본인이다. 머서 교장은 현재의 채드윅 인터내셔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받은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나머지 받은 송도에서 지냈다고 한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채드윅의 이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 채드윅의 가치와 문화, 학교의 운영방침 및 커리큘럼까지 모든 걸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듯 강조하고 있는 채드윅의 교육이념은 1935년, 채드윅을 설립한 마가렛 채드윅(Margaret Chadwick) 여사가 항상 강조해온 글로벌 교육관에 근거한다. 채드윅 여사는 ‘아이들이 노소, 빈부, 인종, 국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을 깨달아야만 폭넓은 세계관(at home in the world)를 가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채드윅이 송도에 학교를 설립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글로벌 리더 양성에 최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 송도에서 진짜 채드윅의 교육을 실현하다

드넓은 운동장에서 까맣고 파란 눈의 아이들이 어울러 뛰어 놀고 저마다 노트북을 꺼내 들고 공동 프로젝트에 몰입하는 ‘리틀 아인슈타인’들의 눈망울이 살아있는 곳. 이곳이 한국인지 세계 어느 나라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 시차가 느껴지는 국제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을 찾았다.

●글 이현주

채드워 인터내셔널 교육과정

채드워 인터내셔널은 학생들은 세계 각국에서 채용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사진과 함께 교사:학생 비율 1:8의 소규모 학급에서 경험 학습을 기반으로 한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인증과 WASC(미국 서부 교육 연합회) 인가 취득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으로 수업받는다. 2010년 12월 싱가포르에 있는 IBO 아시아 본부로부터 PYP(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초등과정) 예비인증학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IB World School을 목표로 지속적인 커리큘럼 검토, 단계적 신청 절차 착수를 진행해 나갈 계획.

학습에 통용되는 언어로는 영어가 사용되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종합적인 영어교육(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초등학교 학습프로그램에는 한국어가 포함되며 중등부 학생들은 교과부에서 승인된 국내 학력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2시간씩 국어와 사회 과목을 이수하면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및 해외의 역사 및 문화유적, 엑스포 등 글로벌 교육현장으로 현장학습이 진행된다.



“채드워 여사의 교육철학을 바로 이곳, 송도에서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채드워 인터내셔널 교사의 대부분은 국제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에 따른 프로그램을 접목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프 머서 총괄의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어머니를 비롯한 삼촌, 이모, 고모 등 많은 가족이 교직에 몸을 담았다. 이후 UC버클리대를 졸업하고 듀크 대학에서 교육학을 수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자의 꿈을 키웠고, 졸업 후 채드워 스쿨에서 역사교사로 첫 교편을 잡게 됐다. 그것이 벌써 16년 전의 일이다. 그는 채드워에서 중학교 교감직을 역임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운영 등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왔다. 한마디로, 채드워의 교육 이념이 뻗속 깊이 박혀 있는 ‘채드워인’인 것이다.

그는 16년 동안 채드워에서의 에피소드를 몇 가지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매 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채드워 스쿨에서 여학생 농구팀 코치를 맡아 캘리포니아 챔피언십 우승 했을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몽글합니다. 이 때의 감동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막론하고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채드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 살던 그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최근 쌍둥이 아들과 아내의 귀국을 결정했던 것도 단순히 채드워 인터내셔널의 총괄교장이기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이자 채드워의 교육 이념을 채드워 인터내셔널에서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연 제프 머서 총괄교장이 말하는 교육 이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경험에 기반 한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다.

“채드워에 1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의 교육 이념과 채드워의 교육 이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학교에서 책으로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열정은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프 머서 총괄교장 교장이 말한 교육 곧 채드워의 교육이념은 너무나 해맑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들을 보니 쉽게 알 수 있다. 잠시 들여다본 수업시간에도 자유분방하면서도 골똥히 학습에 몰입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난 달에는 과학과 수학시간에 부력을 공부하기 위해 아이들이 박스로 모형배를 만들어 직접 타고 학교 수영장 건너기 시험을 벌였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채드워 인터내셔널의 졸업생을 봤을 때 이 아이는 채드워의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여지도록 교육하고 싶습니다. 채드워의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사회의 리더로서 봉사하고 학교가 강조하던 핵심가치를 모든 생활 면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로 자라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리 채드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국제학교가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든다. 그리고, 학교 곳곳에 새겨져 있는 채드워의 5가지의 핵심가치(존경, 책임감, 공정성, 동정심, 정직)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가치를 마음 속에 새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본다.